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판소리 경연·체험까지”

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5월4일~6일, 다향대축제장서
판소리 경연대회·악기 만들기 등
체험 다채... 조상현 국창 공연도



대한민국 대표 소리 축제인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중 개최된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한국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축제에서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통해 신진 인재를 발굴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전통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국악 명인들의 특별 공연, 명창 추모제 등 전통의 멋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전통 악기 만들기 체험, 주막집 판매

행사, 마술 배우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판소리 명창 조상현 국창의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어 전통 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첫날인 5월4일에는 축제의 서막을 여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이 펼쳐진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부문으로 나뉘어, 명창·명고수,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 다양한 부문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5일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함께 장년(노년)부 경연, 명인·명창 고수 열전,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축하공연, 보성군립 국악단 특별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상식도 진행된다. 6일은 보성판소리성지에서

명창 추모제가 열려 보성 소리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판소리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참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문화원(061-850-5892·852-2629)에 문의하거나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www.boseong.go.kr/tour/festivity/sopyonj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소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국악을 즐기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광양시, '솔로엔딩' 참가자 모집
그룹별 남녀 20명씩 총 80명

광양시가 미혼남녀 만남행사 '광양 솔로엔딩'의 참가 희망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솔로엔딩'은 바쁜 일상 등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만들지 못한 미혼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며 1그룹은 오는 9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2그룹은 6월14일 돌싱남녀를 대상으로(일반 미혼남녀도 참여 가능)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룹별 남녀 각각 20명씩을 모집해 총 8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그룹의 경우 27세~39세(1986년~1998년), 2그룹은 33세~45세(1980년~1992년)의 공공기관·기업체 근무자로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여야 하고 여성의 경우 제한 사항이 없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이메일(jang130424@korea.kr)로 제출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내부 보수 후 오늘부터 영업 재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시설 개선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가 1일营业을 재개한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9기 낭만포차 운영협의회는 약 한 달간 냉난방기 설치, 컨테이너 내부 보수, 노후 천막 교체 공사를 진행했으며, 영업 개시 전 포차 광장에서 번영과 무사고를 다짐하는 기원제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냉난방기의 과부하와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배선 공사를 지원했으며, 낭만포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서비스,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낭만포차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먹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낭만포차의 하절기(3~10월)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이며, 동절기(11~2월)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여성미래 행복과정' 운영
한식조리기능사 등 수강생 모집

고흥군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미래 행복과정'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오는 4일까지 모집한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여성미래 행복과정' 상반기 과정은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반으로,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을 개설했다. 교양과 취미 강좌로는 소도구 플라테스, 수채화 어반스케치, 우쿨렐레 등 3개 과정을 마련했다.

수강 신청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을 희망하는 여성은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의는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오는 14일부터 2개월간 운영된다.

한편 고흥군은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 필요한 취업·면접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력이음바우치' 대상자를 오는 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달 27일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의 한 마을에서 어깨동무봉사단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과역면 4개 마을서 봉사

고흥군은 최근 과역면 유동마을에서 유동, 민등, 상분, 하분 등 과역리 4개 마을 주민 28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어깨동무봉사단은 방충망 수리, 농기

계 수리, 소형 가전 수리, LED 조명 교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건강 운동 할법, 돋보기, 양한방 물리치료 등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끌며 방문 때마다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단원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 보람차고 기쁘다"며 "더 많은 사람이 봉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오는 10일 남양면 운교마을에서 258회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확대 시행

6월부터,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4개 초교서 30→50km/h 상향 조정

여수시는 신풍초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을 올해 6월부터 송현초, 신월초, 남초, 백초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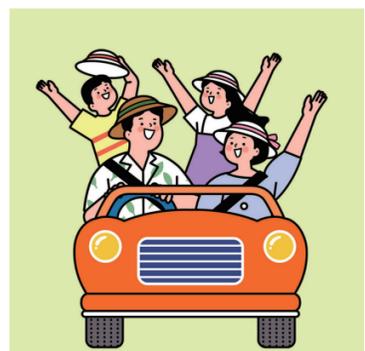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건의는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흥진 여수시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필수 조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신풍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탄력적 속도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선도적인 교통정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
장흥군, 운영 여행사 모집

장흥군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할 여행사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31일 장흥군에 따르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의 관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내 당일 여행 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여행사이며, 1인당 18만원 상당의 도내 당일 여행상품을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여행상품 필수 조건으로는 식사 2식(중·석식) 포함, 유료체류 관광상품 1회 이상 운영, 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동반자 포함) 등이 있다. 군은 여행상품 선정이 끝나는 대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관광활동이 어려웠던 주민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 부담 없이 힐링하고 생활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